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2012. 1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역사 · 문화

조사위원 : 고윤정, 신용만

1._ 서 론

2._ 조사개요

가. 조사기간 및 조사지역

나. 조사방법

3._ 결과 및 고찰

가. 문화재 현황

나. 국가지정 문화재

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재

라. 등록문화재

마. 비지정 문화재

바. 신화와 전설

4._ 향후 관리방안

5._ 참고문헌

1. 서론

한라산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진산(鎭山)으로서 예로부터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瀛洲山)으로 불려왔다. 특히 면적 153.332km²의 한라산국립공원내에는 정상에 산정호수인 백록담(白鹿潭)을 중심으로 40여개의 오름들과 계곡, 수많은 폭포와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어 수려하고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경관들이 해안까지 뻗쳐 제주도라는 섬을 형성해내었다. 또한 이러한 한라산의 경관적 가치 및 자연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6년에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 천연기념물로, 1970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한라산에 대한 조사연구는 여러 분야의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의 대부분은 자연과학적 측면의 한라산 동·식물 연구, 지형·지질연구, 토양 및 기상기후 특성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한라산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유적 및 인문자원에 대한 조사는 대체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조사는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정 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유적의 현황조사 뿐만 아니라 한라산 관련 신화와 전설의 조사 등을 통하여 이들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조사개요

가. 조사기간 및 조사지역

현재 한라산 등산로는 한라산 주봉(主峰)인 백록담을 향해 있는 5개의 등산로와 한라산 주변 오름 등을 오를 수 있는 2개의 등산로가 개방되어 있다. 본 조사는 백록담을 중심으로 한라산의 주요등산로인 어리목과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내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조사지역을 설정하였다. 조사기간에 따른 조사지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등산로별 조사기간 및 지역〉

조 사 기 간	조 사 지 역
2012. 4월	한라산 어리목등산로
2012. 5월	한라산 관음사등산로
2012. 6월	한라산 영실등산로
2012. 7월	일제강점기 및 제주4.3사건 관련 유적
2012. 8월	한라산 영실등산로
2012. 9월	백록담 일원
2012. 10월	한라산 성판악등산로
2012. 11월	한라산 돈내코등산로

나.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재, 비지정문화재의 분포현황을 각종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전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형적 특성 등 부득이하게 현장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행연구 및 기존문헌을 참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는 2002년에 시행된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2006년 발간된 한라산 총서의 『한라산의 역사·유적』과 『한라산의 인문지리』, 『한라산의 등산·개발사』(제주도, 2006)를 참고하였으며, 문화재청(<http://www.cha.go.kr>)과 제주특별자치도청(<http://www.jeu.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등의 자료를 부분 인용하였다. 현장조사는 한라산내 5개의 주요등산로를 우선 조사하고 등산로 이외의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문화재 현황

조사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내에는 총15곳(점)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있는 문화재청 지정 문화재로는 백록담을 중심으로 사라오름,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등 명승(名勝)이 4곳,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자생지 등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5곳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재로는 관음사목조관음보살좌상 등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가 3곳, 존자암지 등 기념물(記念物)이 2곳으로 나타났으며, 근대문화유산(近代文化遺産)으로 제주어승생악일제동굴진지가 등록문화재(登録文化財)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有形)의 역사문화자원을 한라산국립공원내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무형(無形)의 유산으로 한라산 관련 신화와 전설도 함께 조사하였다. 한라산국립공원내에서 조사된 역사문화자원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한라산국립공원 역사문화자원 현황〉

구 분			수 량	역사·문화자원 내역
지 정	소 계		15	
	국가 지정	명 승	4	사라오름(제83호)*,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제84호), 한라산 백록담(제90호), 한라산 선작지왓(제91호)
		천 연 기념물	5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제156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제182호), 제주의 한탄(제191호), 제주의 제주마(제347호), 제주 물장오리 오름(제517호)
	도 지 정	유 형 문화재	3	관음사목조관음보살좌상(제16호), 존자암지세존사리탑(제17호), 선덕사소장화암사판묘법연화경 권4~7(제19-2호)
		기념물	2	존자암지(제43호), 관음사왕벚나무자생지(제51호)
		등록문화재	1	제주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제307호)
비 지 정	유 형		11	한라산내 사찰 및 암자 4건, 제주4·3사건 관련 2건, 한라산 마애명 2건, 산악인 케른 3건
전 설	무 형		14	한라산 형성과정에 관한 전설 6건, 한라산과 신당에 관한 전설 8건

*()안의 숫자는 각 문화재별 지정번호로서 이하 같음.

나. 국가지정 문화재

1) 명승

<1> 사라오름(명승 제83호)

사라오름은 한라산 동북사면 성판악등산로 근처에 있는 원형의 오름이다. 둘레 약250m의 정상 분화구에는 물이 고여 있어 습지를 형성하고 있는 산정호수(山頂湖水)가 있다. 해발 1,324.7m의 정상에 올라서면 멀리 바라보이는 한라산 정상과 다양한 경관이 아름다워 조망지점으로서의 가치

가 아주 뛰어난 명승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일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1년 10월 13일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62,863㎡이다. 국유림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1. 사라오름>

<2> 영실기암과 오백나한(명승 제84호)

영실기암(靈室奇岩)은 제주도의 대표절경인 영주십경(瀛洲十景)¹⁾의 하나로서 한라산 정상의 남서쪽 산허리에 위치해 있는데, 깎아지른 기암괴석들이 하늘로 솟아 있고 석가여래가 설법하던 영산(靈山)과 흡사하다 하여 영실(靈室)이라 일컫고 있다. 그리고 기암괴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마치 병풍을 쳐 놓은 모습 같은 병풍바위와 오백의 나한(羅漢) 또는 장군(將軍)의 모습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오백나한(일명 五百將軍)상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과 울창한 수림이 어울려 한라산의 빼어난 경치를 보여주는 명승지로써 으뜸이

1) ①성산일출(城山日出), ②영구춘화(瀛丘春花), ③굴림추색(橘林秋色), ④산포조어(山浦釣魚), ⑤고수목마(古藪牧馬), ⑥녹담만설(鹿潭滿雪), ⑦영실기암(靈室奇岩), ⑧정방폭포(正房瀑布), ⑨산방굴사(山房窟寺), ⑩사봉낙조(沙峰落照)

라 할 수 있다.

서귀포시 하원동 산1-4번지 및 서귀포시 도순동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1년 10월 13일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969,914㎡이다. 국유림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2.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3〉 한라산 백록담(명승 제90호)

백록담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정화구호(山頂火口湖)로 풍화나 침식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순상화산(楯狀火山)의 원지형이 잘 보존되어 학술가치가 크고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는 화산지형이다. 남북으로 585m 동서로 375m 둘레 1,720m, 깊이 108m의 산정호수로써 가물때가 아니면 1~2m 이내의 물이 항상 고여 있다. 백록담의 명칭은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하여 명명(命名)되었다고 한다.

한겨울에 쌓인 눈은 이른 여름철까지 남아있어 백록담의 눈 덮인 모습을 영주 십경의 하나인 ‘녹담만설(鹿潭滿雪)’이라 하여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그리고 백록담 주변과 분화구내에는 구상나무와 돌매화나무, 한라솔다리, 섬매발톱



〈그림 3. 한라산 백록담〉

등 무려 17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한라산에만 자라는 특산식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적 학술가치가 아주 뛰어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 23일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210,230㎡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4〉 한라산 선작지왓(명승 제91호)

한라산 영실등산로 해발 1,600m를 지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란다는 구상나무 군락이 이어지는데, 이 숲을 벗어나면 넓은 초원지대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이 바로 ‘선작지왓’이다. 한라산 주봉인 백록담 화구벽을 정면으로 동쪽의 방아오름, 서쪽의 영실기암 능선, 남쪽의 산림지대, 북쪽의 윗세오름 능선에 이르는 해발1,600~1,700에 위치한 광활한 지역이다.

선작지왓의 지명유래를 보면 ‘작지’는 조금 작은 돌을 이르고 ‘왓’은 별판이란 뜻의 제주방언이다. 곧 돌들이 널려있는 별판이라는 의미다. 한라산 선작지왓은 털진달래와 산철쭉을 비롯한 낮은 관목류가 널리 분포하며, 4월부터 6월까지 털진달래의 연분홍색과 산철쭉의 진분홍색이 온 지역을 뒤덮어 산상화원(山上花園)의 경이로운 장관을 연출하며, 눈 덮인 설원의 한라산 정상과 어우러진 경관은 선경(仙景)을 만들어 자연경관의 가치가 아주 뛰어나다.



〈그림 4. 한라산 선작지왓〉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영남동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2년 12월 17일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632,485㎡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2) 천연기념물

<1>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56호)

왕벚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로 꽃은 4월경에 먼저 피는데 백색 또는 연한 홍색을 띤다. 제주도와 전라북도 대둔산에서만 자생하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서 그 수가 매우 적은 희귀종으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고, 식물지리학적 연구가치가 높은 수종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1964년 1월 31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186,485㎡이다. 서귀포시 소유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5.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촬영 고정군)>

<2>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600~1,300m 이상의 지역과 일부의 하천과 계곡, 그리고 특수한 식물상을 보이는 일부지역을 권역으로 한다. 본 천연보호구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해발 600~1300m 이상의 구역과 계곡으로 되어 있으며 북위 33°19' 15" ~ 33°2



<그림 6.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5' 30", 동경 126°27' 59" ~ 126°37' 38" 사이에 위치한다.

보호구역 내의 최고봉인 한라산은 해발 1,950m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에 두루 걸쳐 있다. 1966년 10월 12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91.65km²이다. 소유자는 국유와 사유로 혼재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은 지형과 지질, 동·식물 등으로 인하여 특이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특히 보호가 필요한 많은 학술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한라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3〉 제주의 한란(천연기념물 제191호)

한란은 꽃이 12월~1월의 추운 겨울에 핀다고 하여 한란(寒蘭)이라 불린다. 잎은 3~4개가 나고 길이는 20~70cm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부드러우며 밋밋하게 자라 춘란(春蘭)과 구별된다. 겨울에 피는 꽃은 황록색이나 자줏빛을 띠는데 매우 향기롭다.

제주도의 한란은 한라산 남쪽 해발 700m 근처인 시오름과 선돌 사이의 상록수림과 돈내코계곡 입구에서 자라는데, 이 일대는 한란이 자랄수 있

는 북쪽 한계선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식물로 유일하게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1967년 7월 1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7. 제주의 한란〉

〈4〉 제주의 제주마(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는 흔히 '제주도 조랑말'이라고 하며, 키가 작아서 과일나무 밑을 지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의 '과하마(果下馬)' 또는 '토마(土馬)'라고도 한

다. 키가 암컷 117cm, 수컷 115cm 정도인 중간 체구의 말로, 성격이 온순하고 체질이 건강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과 생존력이 강하다. 털색은 밤색이 가장 많고 적갈색, 회색, 흑색 등의 순서이다. 이 말은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으며 몸길이가 긴 독특한 체형으로 다른 말들보다 작다. 제주도에 서 말을 기르게 된 것은 고려 원종 때 원나라에서 제주도에 목장을 설치하고, 충렬왕 2년(1276년)에 몽고말 160마리를 들여오면서부터라고 한다.

제주도의 제주마는 농경문화에 크게 기여해서 한때는 2만여 마리에 달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혈통 및 종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게 되었다.

1986년 2월 8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제주마를 생산하는 종마장(種馬場)과 제주마방목지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인 제주시 용강동 산14번지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소유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8.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5〉 제주 물장오리 오름(천연기념물 제517호)

한라산의 백록담, 영실의 오백나한과 함께 신성시해 온 물장오리 오름은 제주도의 설화에서 제주도와 한라산을 만들어낸 설문대할망의 이야기가 깃들여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오름이다. 물이 깊다하여 ‘창터진 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물장오리는 한라산 정상 동북쪽의 해발 900m 지점에 위치하고 분화구의 정상부가 해발 937m, 그 내부의 습지는 해발 900m이며, 습지의 둘레는 약400m, 분화구 둘레는 3,094m이다.

제주시 봉개동 산78-3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0년 10월 28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1,330km²이다. 국유림지역으로 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9. 제주 물장오리 오름〉

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재

1) 유형문화재

〈1〉 관음사목조관음보살좌상(유형문화재 제16호)

관음사목조관음보살좌상은 1698년 만들어져 전라남도 해남의 대흥사에서 모시다가 1925년 안봉려관 스님이 제주 관음사로 옮겨온 것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전체 높이 75cm의 단아한 보살상으로 머리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관(冠)을 쓰고 있다. 관의 정면에 8개의 커다란 꽃무늬가 배치되어 있고 좌우로 화려한 장식이 있는데,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보살상 조각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양감 있고 단아하게 표현된 얼굴, 부드럽게 흘러내린 옷주름은 당시 보살상 중에서도 뛰어난 기법을 보여준다.

제주시 아라1동 387번지 관음사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1999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관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2〉 존자암지세존사리탑(유형문화재 제17호)

존자암지세존사리탑은 영실 불래오름 자락의 존자암 복원지 경내에 있다. 존자암의 창건 연대를 살펴보면 ‘존자암은 高·梁·夫 三姓이 처음 일어났을 때 비로소 세워졌다’고 충암 김정은 존자암중수기[--夫尊者之爲庵 肇

造於三姓初起之時 而久傳於三邑鼎峙之後--]에서 밝히고 있다. 세존사리탑에 관한 자료는 1650년(효종2년)에 안핵어사로 왔던 이경억의 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세존사리탑은 제주현무암으로 만들어졌는데, 먼저 지대를 단단히 다진 후 8각형 기단을 구축하여 그 위에 괴임돌을 놓고 탑신을 얹어 옥개석을 동일석으로 만들었다. 탑신석은 석종형(石鐘形)에 속하나 장구형(長球形)으로 상·하를 평평하게 다듬었으며 중앙부로부터 상·하단에 이르면서 유여한 곡선미를 보이고 있다. 옥개석 형태는 하면은 평평하나 낙수면이 제주 초가지붕 형태로 부드러운 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위에 조성된 보주 또한 세련된 조각미를 연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옥개석과 보주를 같은 돌로 다듬은 예가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팔각으로 이뤄진 하대석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사리탑의 기본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괴임돌에 사리공을 마련하고 장구형 탑신석 위에 옥개석을 덮어 정상에 보주를 장엄한 양식 등 각부의 다듬은 모양과 건조수법으로 보아 건조연대는 고려말 조선초로 추정된다. 2003년 봄에 정비되었다.

서귀포시 하원동 산1-1번지 존자암에 있으며, 2000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서귀포시 소유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11. 존자암지세존사리탑〉

〈3〉 선덕사 소장 화암사판 묘법연화경 권4~7(유형문화재 제19-2호)

영실 영원사 오백나한전에 소장되어 있는 '선덕사 소장 화암사판 묘법

연화경'의 판본은 전 7권 2책 중에 권1~3의 1책이 결본으로, 권4~7의 1책만이 해당된다. 이 책은 사육신의 한 분인 성삼문의 조부인 성달생(권1·7)과 임효인(권2~4)·조 절(권5~6)등이 1432~1435년까지 4년 동안 글씨를 썼으며 1435~1442년 까지 8년여 동안 화암사에서 판각하였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권1의 책 처음 쪽을 기준으로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반곽의 크기는 가로 13.7cm, 세로 21cm로 되어 있다. 계선은 없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20자씩 배자되어 있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판심 부분은 고려본의 영향을 받은 듯 어미는 없고, 단지 판심제인 '법(法)'과 그 밑으로 권차와 장차 표시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판식은 성달생이 쓴 판본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이다.

본 묘법연화경은 1982년 전 조계종 종정이셨던 고암 대종사께서 선덕사 중창불사 증명법사로 주석하셨을 때 학균화상에게 전수하여 주신 것이며,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선덕사에 보관되었다가, 2007년 12월 11일 영실영원사로 옮겨 봉안하였다.

영원사는 서귀포시 하원동 산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소유자는 손명훈이며,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12. 화암사판 묘법연화경 권4~7(촬영 윤봉택)〉

2) 기념물

〈1〉 존자암지(기념물 제43호)

존자암지는 '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 등의 문헌에 나한을 모셨던 절로

기록되어 있는 절터이다.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로 인간의 소원을 빨리 성취시켜 주는 복전(福田)이라 하여 일찍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절에는 대부분 영산전을 두어 석가의 10대 제자를 비롯하여 16나한, 500나한 등을 봉안하고 있으며 나한전이나 응진전을 따로 둔 절도 있다. 1990년대의 발굴조사에서 건물지, 부도, 배수시설과 기와조각, 분청사기조각, 백자파편들이 발견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복원이 완료되었다. 이 절을 세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건물지 북쪽에 있는 부도(제주도 유형문화재 제17호)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하원동 산1-1번지 불래오름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7월 13일 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20,800㎡이다.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13. 복원된 존자암〉

〈2〉 관음사왕벚나무자생지 (기념물 제51호)

관음사의 왕벚나무 자생지는 도내 왕벚나무 자생지로서는 가장 많은 개체수를 이루고 있으며 꽃의 형질도 매우 우수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인정되어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꽃의 형질도 매우 우수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인정되므로 문화재로 지정, 보



〈그림 14. 관음사왕벚나무자생지(촬영 고정군)〉

존·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다.

제주시 아라1동 산66번지 관음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1999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소유자는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이며,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라. 등록문화재

1) 근대문화유산

<1> 제주어승생악일제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07호)

문화재청 등록문화재인 제주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는 우리나라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의 최고 지휘부인 제58군 사령부 주둔지로서 일본군 최후의 저항 거점으로 삼기 위해 1945년경에 건립되었다. 두 개의 병커와 세 개의 동굴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길이가 300m에 이르는 동굴진지는 입구가 세 곳이고 내부 공간은 격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치카는 두꺼운 철근과 시멘트로 견고하게 구축하였고, 밖을 관측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되어 있다.

제주시 해안동 산220-1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6년 12월 4일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405,509㎡이다. 산림청 국유림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15. 어승생악일제동굴진지>

마. 비지정 문화재

1) 사찰

<1> 관음사(관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한라산에 있는 절로써,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의 본사이다. 창건자 및 창건연대는 미상이나 조선 숙종 때 제주 목사였던 이형상(李衡祥)이 제주에 잡신이 많다 하여 많은 사당과 함께 사찰 500동을 폐사시켰을 때 폐허가 되었다.

현재의 관음사는 1912년 비구니 봉려관(蓬廬觀)이 창건한 것이다. 봉려관은 원래 떠돌이 무당이였으나, 1901년 비양도(飛揚島)로 가는 길에 우연히 풍랑을 만나 사경에 이르렀을 때 관음보살의 신력으로 살아나게 되자, 1907년 비구니가 되어 그 이듬해 제주도로 돌아와서 이 절을 짓고 불상을 모셨다. 4월 경찬재(慶讚齋)를 여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여 죽이려 하므로 한라산으로 피신했다가, 1912년 승려 영봉(靈峰)과 도월거사(道月居士)의 도움으로 법정암(法井庵 : 관음사의 전신)을 창건하였다.

이 때 불상 및 탕화는 용화사(龍華寺)와 광산사(匡山寺)에서 옮겨왔으며, 그 뒤 신도가 늘어나자 절 이름을 관음사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1948년 4월 제주도반란사건으로 전소되었고, 1968년 중창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종루·산신각·불이문(不二門)·대방(大房) 등이 있다. 현재 이 절은 조계종의 본사로서 제주도의 말사 약 30여 개를 관장하고 있다.



<그림 16. 관음사 경내 전경>

<2> 천왕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한라산 기슭에 있는 사찰이다. 한라산

1100도로를 따라 가면 어승생오름(높이 1,176m) 동쪽에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로 이루어진 아흔아홉골 또는 구구곡(九九谷)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는데 천왕사는 아흔아홉골 중 하나인 금봉곡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다.

1955년 현재의 천왕사 삼성각 근처에 있던 토굴에서 참선 수행하던 비룡스님에 의해 수영산선원이란 명칭으로 창건되었다. 1967년 12월 천왕사로 사찰명을 변경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인 관음사 말사로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조계종총무원 직할 1교구로 등록되어 있다. 건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찰임에도 1994년 4월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그림 17. 천왕사>

한라산 아흔아홉골의 수려한 풍광 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찰로서 대웅전 바로 뒤로는 용바위라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마당 왼쪽 산자락으로는 기세 좋게 곧게 뻗은 바위들이 울창한 숲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사찰 옆의 계곡

을 따라 올라가면 한라산에서 유일한 폭포라는 선녀폭포도 있으며, 사찰 입구에는 한라산 노루도 먹고 간다는 약수터가 있다. 특히 가을이 되면 천왕사 주변은 기암절벽 아래 화려하게 물드는 단풍으로 장관을 이룬다.



<그림 18. 석굴암>

<3> 석굴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의 아흔아홉골에 있는 암자이다. 아흔아홉골은 크고 작은 수

많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계곡 밀집 지대로 '구구곡(九九谷)'이라고도 하는데, 석굴암은 그중 한 골짜기인 금봉곡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이다. 옛날에 월암 스님이 천일기도를 드리기 위해 기도처를 찾았으나 적당한 곳을 발견하지 못해 포기하려던 순간, 산새 한 마리가 나타나 이 암자까지 길을 인도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암자로 오르는 길에는 한라산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산행하기 적당한 코스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등산과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4〉 영원사(靈園寺)

한라산 해발1,280m에 위치한 영실등산로 입구 좌측에는 영원사라는 오백나한을 모셔 놓은 절이 있다. 예전에는 자그마한 암자였는데, 최근에 새로 단장을 하여 영실등산로를 이용하여 한라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불법을 전파하고 있는 곳이다. 영원사에는 도지정유형문화재 제19-2호인 화암사판 묘법연화경 권4~7권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실 영원사(靈園寺)의 창건 연대는 미상이나, 예부터 영실(靈室)에는 많은 고승 대덕들이 찾아와 존자암과 수행굴 등에서 수행 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오래전부터 암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원사는 1980년대 초 조계종 중정을 역임하신 고암 대종사께서 이곳을 찾아 폐사된 암자터를 정비하였다. 이후 최용주 거사 내외가 복원하여 설판한 것이다.



〈그림 19. 영원사(촬영 김대신)〉

2) 제주 4·3사건 관련

<1> 관음사 군주둔지 옛터

1909년 창건된 관음사는 무장대들의 근거지인 어승생악과 가까워 제주 4·3사건 당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다. 1949년 3월부터 잔여 무장대 토벌을 위한 2연대의 작전이 강화되면서 2연대 2대대 병력이 주둔했다. ‘관음사 전투’라 불리는 교전이 무장대와 토벌대 간에 벌어지기도 했다. 1949년 2월 12일에는 토벌대에 의해 대웅전, 향적전 등 8채의 건물이 전소되었다. 현재 관음사 내에는 토벌대가 주둔했던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그림 20. 관음사 군주둔지 옛터>

<2>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漢拏山開放平和紀念碑)와 평정기념비(平定紀念碑)

한라산 백록담 정상 북쪽 능선에 세워진 비석으로써, 제주 4·3사건이 진행 중인 1948년 10월 17일에 해안으로부터 5km 이상 벗어난 지역으로 통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이러한 통행금지는 한라산을 전면 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954년 9월 21일 금지령이 해제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 이듬해인 1955년 9월 21일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를 세웠다.

한편, 당시 2연대 1대대 탐라대 소속이었던 이윤 하사는 자신의 수기인 『진중일기』에 1949년 7월 23일 백록담 서쪽 봉우리에 ‘평정기념비’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림 21. 평정기념비
(자료사진, 촬영
김용구)>



3) 한라산 마애명(磨崖銘)

한라산에서는 백록담과 탐라계곡 등에서 조선시대 인물들의 마애명이 발견되고 있는데,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제명이고 제영과 제사 등이 보이고 있다.

해발 1,950m 백록담 내부에는 30여건의 마애명이 발견되고 있다. 마애명이 위치한 곳은 백록담 북측내부에서 동측내부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마애명은 1521년 유배인 김정(金淨)의 제명이며, 관료로는 1758년 제주목사 조위진 일행이 보이고 있다. 제명(題名)은 30건에 93명, 제영(題詠)은 2건이 발견되고 있다.



〈그림 23. 백록담 마애명〉

〈2〉 탐라계곡 마애명

제주도 북쪽 해발 614m의 탐라계곡 동측벽에는 총 4건의 마애명이 발견되고 있는데, 1836년 제주목사 조우석 일행의 해서체 제명을 비롯하여 연대미상의 장한규 일행, 최치경의 마애명이 있다. 그리고 행서체의 '은선동(隱仙洞)' 마애명이 발견되었다.



〈그림 24. 탐라계곡 마애명〉

4) 산악인 케른

케른[cairn]은 등산 용어로서, 등산자가 이정표나 기념으로 쌓은 돌무더기나 석총(石塚) 따위를 말한다. 현재 한라산에는 한라산을 등반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거나,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를 등정하다가 불의의 객이 된 제주도출신 등 산악인의 넋을 추모하는 케른과 추모탑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케른은 탑모양으로 돌로 쌓아 올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돌탑을 쌓은 후 동판에 추모의 글을 새겨 놓은 경우도 있고, 추모글을 새긴 동판만 큰 암벽에 박아 놓은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케른의 형식으로 한라산에 쌓은 최초의 산악인 케른과 제주도 출신의 대표적 산악인 등을 중심으로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1〉 마에가와 도시하루[前川智春] 케른

1935년 12월 30일 일본 경성제국대학 산악부 9명은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대장을 중심으로 한라산 정상등반에 나섰다. 관음사를 출발해 개미목 산장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산악훈련 및 정상등반에 성공하였으나, 다음해 1월 3일 하산도중 산악부원 중 한명인 마에가와 도시하루[前川智春]가 한라산 용진각 부근 북서쪽 75m 지점에서 조난당하였다. 제주도 당국에서는 수색대를 결성하여 7일간 수색을 벌였으나 마에가와 도시하루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기상악천후로 인하여 수색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해 5월 초순경 제주도 수색대원에 의하여 개미목산장 부근 잔설속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이 일본 경성제국대학 산악부 조난사는 한라산 조난사고의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한라산 용진각 남동쪽 50m 지점에는 일본 경성제국대학 산악부와 제주도의 학생들이 1936년 8월에 세운 마에가와 도시하루의 케른이 세워져 있으며, 그를 추모하는 묘비문이 함께 새겨져 있다.



마에가와도시하루 케른

묘비문

〈그림 25. 마에가와도시하루 케른〉

〈2〉 고상돈 케른

고상돈(高相敦)은 1948년 12월 29일 제주시 칠성통에서 출생하였으며,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를 등정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1965년 충북산악회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등산인으로서 출발하였다. 특히, 겨울등반에 능하여 1977년 한국에베레스트원정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1977년

9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덟번째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국가가 되었고, 포스트·몬순 기간의 등정으로는 세계 세번째라는 기록을 세웠다. 1979년 (6,191m) 원정대 대장으로 참가하여, 5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정상을 정복하였으나 하산하다 웨스턴 리브 800m 빙벽에서 추락, 이일교(李壹敎)와 함께 현장에서 숨졌다.

그를 추모하는 케른이 한라산 장구목 능선에 있으며, 추모탑은 현재 한라산 1100도로 탐라각휴게소 부근에 세워져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2월 한라산 중턱인 제주시 해안동 어승생 삼거리에서부터 서귀포시 구탐라대 사거리까지 1100도로 구간 18km를 '고상돈로'라는 이름의 명예도로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림 26. 고상돈 케른〉

〈3〉 오희준 케른

산악인 오희준은 1970년 8월 16일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태어나 노스페이스 알파인팀 소속으로 산악활동을 시작해 1999년 히말라야 초오유(8201m)를 시작으로 브로드피크(8047m), 시샤광야(8031m), 로체(8616m), K2(8611m), 안나푸르나(8091m), 에베레스트(8848m), 가셔브롬 I봉(8868m), 가셔브롬 II봉(8035m)에 이어 마나슬루(8156m)까지 히말라야 8,000미터급 10좌를 단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 하였다. 또 2004년에는 남극원정을 떠나 세계 최단기록인 44일만에 남극점에 도달했으며 또한 2005년에는 북극점을 2006년에는 에베레스트(8848m)등정에 성공하여 지구 3극점을 밟아 제주의 자랑스러운 산악인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작지왓의 케른



서귀포시의 추모탑(촬영 오희삼)

〈사진 27. 오희준 케른〉

오희준은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8848m) 남서벽 신루트[코리안루트]개척 등반 중 캠프4에서 불의의 눈사태를 만나 37세의 젊은 나이에 히말라야의 영혼이 되었다.

그를 추모하는 케른이 한라산 선작지왓 백록샘 부근에 세워져있으며, 추모탑은 서귀포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에 조성되어 있다.

그 밖에 한라산에 있는 산악인 케른 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 히말라야 랑탕리룸 정상 정복 후 하산도중 실종된 한국설악산악회 소속 산악인 김진현의 추모동판이 한라산 장구목 서측 큰두레왓이 내려다보이는 암벽에 새겨져 있으며 그의 추모비는 한라산 1100도로 천왕사 부근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영실 선작지왓 부근에는 1984년 김영준의 케른이 세워져 있으며, 한라산 장구목에는 고동익과 제주대학교 산악부를 추모하는 동판을 암벽에 박혀 놓았다.



〈그림 28. 김진현 케른〉



〈그림 29. 선작지왓 김영준 케른〉

바. 신화와 전설

1) 한라산 형성과정에 간한 전설

<1> 선문대 할망의 한라산 창조

선문대 할망의 한라산이란 이름은 은하수를 어루만질 만큼 높은 산이라 해서 붙여진 것이다. 옛날 선문대 할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다. 이 할머니는 한라산을 배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 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이 할머니는 빨래를 하려면 빨래를 관탈섬(또는 추자도)에 놓아 발로 밟고, 손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발로 문질러 빨았다. 다른 이야기에는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아 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디디고, 한쪽 다리는 서귀포시 앞바아의 지귀섬(地歸島, 또는 대정읍 앞 바다의 마라도)에 디디고 해서 구좌읍 소섬[牛島]을 빨래돌로 삼아 빨래를 했다.

이처럼 거대한 여신이니, 한라산은 거뜰히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속옷은 없어도 치마는 입었던지, 이 여신은 치마폭에다 흙을 가득 담고 지금의 한라산에 있는 자리로 운반해 갔다. 치마는 헌 것이어서 치마

폭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세어 흘러 그것이 도내(道內)의 많은 오름[小火山]이 되고 마지막으로 날라 간 흙을 부으니, 그것이 한라산이 되었다.



<그림30. 한라산>

<2> 백록담과 산방산(山房山)의 형성

한라산 정상에는 넓고 큰 분화구가 있다. 그 둘레가 약 2km이고, 기암 절벽과 고산지대 수림(樹林)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분화구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는데 이것이 백록담(白鹿潭)이다. 백록담의 풍치는 사계절 모두 좋고, 특히 이곳의 설경은 절경이다. 속세인 마을들에는 초여름이 와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에 백록담에는 하얀 눈이 깔려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신비경으로 이끈다. 그래서 이를 녹담만설(鹿潭晩雪)이라 하여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로 쳐 극찬해 왔다. 이러한 백록담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을까?

옛날 어떤 사냥꾼이 한라산에 사슴을 잡으러 갔다. 활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 다녔는데, 사슴은 잡히지 않고 한라산 정상에까지 올라가 사슴을 발견하고 급히 활을 치켜들고 쫓아가다가 아차 실수하여 활 끝으로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말았다. 옥황상제는 화가 나서 곧 한라산 봉우리를 잡히는 대로 잡아 뽑고는 서쪽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 봉우리가 날아와서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리에 떨어지니 그것이 산방산이 되고, 봉우리를 뽑아버린 자국은 움푹 패어 지금의 백록담이 생기게 되었다. 산방산은 기암괴석의 둥그스름한 바위산이어서 그 모습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옮겨다 놓은 듯한 기괴한 산이다.



〈그림 31. 산방산〉

〈3〉 신선(神仙)의 놀이터

선문대 할망의 창조작업으로 한라산이 이루어지고, 옥황상제가 그 봉우리를 뽑아 던짐으로써 백록담이 이루어지자, 경승은 점차 갖추어져 갔다. 한라산의 절경을 가장 먼저 즐긴 이는 아마 신선들이었고, 의식주 걱정 없이 불로장생하는 신선들은 한라산을 무대로 생을 즐긴다.

한라산 가운데도 특히 못 신선들이 즐겨 산 곳은 백록담이다. 여기의 신선들은 백록(白鹿)을 타고 다니며 백록을 기른다. 백록들은 그저 놓아두면 한라산의 영주초(瀛洲草)를 뜯어먹어 살이 쪼든다. 물은 백록담의 물을 먹어야 하니, 이 때만은 신선이 백록을 타고 사슴 떼를 몰아 물을 먹이러 온다. 그래서 한라산을 일명 영주산(瀛洲山)이라 하고, 정상의 못을 백록

담이라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백록은 신선이 타는 말이어서 사냥꾼이 잡지 아니한다. 만약 백록을 쏘면 그 사냥꾼은 천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 이처럼 한라산은 신선이 즐기는 곳이니, 사람들이 즐기지 않을 것이나. 예로부터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신선만큼이나 그리던 곳이 한라산이다. 더욱이 역대로 부임해 온 제주목사(濟州牧使)들은 거의 모두 한라산의 산유(山遊)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목사들의 산유는 풍류가 있어 좋았지만, 그에 따른 백성들의 괴로움은 또 그만큼 컸었다.

제주도가 제주, 정의, 대정 삼현(三懸)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던 이조시대 목사가 백록담에 올라 설 때 남향하여 “거, 좋다”하면 대정현이 잔치를 베풀고, 동향하여 “거참, 이쪽이 좋다”하면 정의현이 북향하여 앉아 즐기면 제주목에서 잔치를 차렸다.



〈그림 32. 신선의 놀이터 백록담〉

〈4〉 영실기암의 형성

영실기암은 한라산 정상에서 서남쪽 약 3km 쯤의 등허리에 있다. 울창한 숲 속에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이 수백개 즐비하여 하늘을 찌른 것이 정히 장관이다. 이 기암괴석들은 한번 보면 활을 메고 나서는 장군들 같고, 다시 보면 도를 깨친 나한(羅漢)들이 늘어선 것도 같다. 그래서 그 수

가 오백이나 된다하여 오백장군(五百將軍) 또는 오백나한(五百羅漢)이라 부른다. 신이 빚어놓은 듯한 이 절경이 하도 뛰어나므로 이를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로 쳐 선인들이 즐겨왔다.

오백장군, 오백나한이란 이름은 기암의 수가 오백 개가 된다는 데서 생겼다. 실은 엄밀히 따지면 499개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장군이나 나한으로 부르는 것도 겉만 보고 붙인 이름이다. 그 속을 캐어보면 비화(悲話)어린 화석이다.

아득한 옛날에 한 어머니가 아들 5백 명을 낳아 한라산에서 살고 있었다. 식구가 많은데다 가난하고 마침 흉년까지 겹치니 끼니를 이어가기가 힘들게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죽이라도 끓여 먹고살게 아니냐”고 타일렀다. 오백 명의 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큰 가마솥에다 불을 때고 솥전위를 걸어 다니며 죽을 저었다. 그러다가 그만 잘못 디디어 어머니는 죽솥에 빠져 죽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오백 명의 형제는 돌아와서 죽을 먹기 시작했다. 여느 때보다 죽이 맛이 좋았다. 맨 마지막에 돌아온 막내 동생이 죽을 뜨려고 솥을 젖다가 이상하게도 뼈다귀를 발견했다. 다시 잘 저으며 살펴보니 사람의 뼈다귀임이 틀림없었다. 동생은 어머니가 빠져 죽었음이 틀림없음을 알았다. 동생은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불효의 형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통탄하며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遮歸島)으로 달려가 한없이 울다가 그만 바위가 되어 버렸다. 이

것을 본 형들도 비로소 사실을 알고 여기 저기 늘어서서 한없이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그러니 영실에는 499장군이 있는 셈이고 차귀섬에 막내 동생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는 셈이다.



〈그림 33. 영실 오백장군바위〉

〈5〉 아흔아홉골

한라산 북쪽 밑, 곧 제주시 해안동 1100도로 가에 ‘아흔아홉골’이라는 산이 있다. 이것도 또한 풍치의 경승이다. 이 산은 크고 작은 골짜기가 마치 밭고랑처럼 무수히 뻗어 내린 기봉이다. 밭이랑 같은 기봉마다 갖가지 수림이 울창한데다 형형색색의 기암괴석이 저마다의 모습을 뽐내며 솟아 있고, 골짜기마다 언제나 맑은 물이 한가히 흐른다. 그 골짜기가 하도 많으니 아흔 아홉개가 있다 해서 이름을 ‘아흔아홉골’이라 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골짜기가 하나만 더 있어 백 골이 되었다라면 제주에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날 것이고, 장군이나 임금 같은 인물이 날 것인데, 한 골이 모자라 아흔 아홉골 밖에 안되므로 맹수도 안 나고 인물도 안 난다고 한다.

아득한 옛날 이 골짜기는 본래 백 골이었다. 그 때는 많은 맹수가 나와 날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중국에서 스님 한 분이 건너와서 백성들을 모아 놓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맹수를 없애 줄 터이니 “대국 동물대왕 입도(入島)”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다. 그랜더니 기이하게도 모든 맹수들이 이 백 골에 모여들었다. 스님은 불경으로 한참 외고 나서, “너희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 이제 너희들이 나온 골짜기는 없어지리니, 만일 너희들이 또 오면 너희 종족이 멸하리라.” 맹수를 향해 소리치니, 호랑이, 사자, 곰 할 것없이 모두 한 골짜기로 사라졌다. 그 순간 그 골짜기가 없어져 버렸다. 그후 이 산은 아흔 아홉골 밖에 되지 않았고, 따라서 제주에는 맹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34. 아흔아홉골〉

〈6〉 한라산의 고려장

신선의 놀이터로 이름 난 한라산은 못 사람들이 선망하는 신성한 산이었다.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인간들은 한라산에서 절경을 즐기며 영생하는

신선이 그리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라산에 가서 신선이 되기를 열망하게 마련이다.

옛날 제주도에서는 노인이 70세가 되는 날,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 놓고 어버이를 앉혀 두고 오면 그날로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풍속은 이조때까지 내려왔는데 세종 때 기견(奇虔) 목사 시절, 어느 날 이방이 내일은 아버지가 신선이 되;는 날이어서 아버지를 한라산의 정상, 백록담에 모셔갔다 와야겠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다. 목사는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옥황상제에게 편지를 한 장 써 보낼 터이니, 아버지께서 그 편지를 가슴에 꼭 품어 소중히 가져가서 옥황상제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해 달라며 자그마한 봉투 하나를 이방에게 주었다. 이방이 아버지를 모시고 한라산에 올라갔다 돌아온 다음날 아버지가 신선이 되어 잘 오셨는지 보자면서 목사도 이방을 따라 한라산 정상에 함께 올라갔다. 신선이 되도록 아버지를 앉혀 둔 자리에 가보니, 거기에는 커다란 뱀이 한 마리 죽어 넘어져 있었다. 목사가 그 뱀을 잡아 배를 갈라 보니 배속에는 이방의 아버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목사가 옥황상제에게 보낸 편지는 독약이었다. 그 후부터 70세가 된 노인을 한라산에 버리는 풍속이 없어졌다.

2) 한라산과 신당(神堂)에 관한 전설

한라산은 예로부터 신성시해 왔다. 신성시해 왔다는 것은 거기에 신령이 있음을 믿어왔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은 한라산을 신성시하고, 한라산신(漢拏山神)의 존재를 믿어 그들의 복리를 기원해 왔다. 이 신앙행사는 본래 마을 단위의 부락제로 벌여 왔고 마을의 복리를 축원하여 전승되었기 때문에 한라산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져 버렸다. 마을의 수호신이 바로 신당(神堂)이다. 지금 한라산에서 출생했다고 전해오고 있는 여러 마을의 당신(堂神)들은 바로 한라산 숭배의 잔영이다. 당신들의 모습과 생활상을 추려 보면 한라산신의 그것도 추측할 수가 있다.

<1> 세화 본향당신(細花 本鄉堂神)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의 수호신인 본향당신은 천жат도, 금상님, 2위(位)이다. 천жат도는 한라산의 백록담에서 저절로 솟아난 신이고, 백जू도는 서울 서대문 바깥에서 솟아난 임정국의 따님아기인데, 천жат도의 외손녀가 되며, 용왕천자국의 황제는 백जू도의 외삼촌이라고 한다.

천장도는 백록담에서 부모 없이 저절로 솟아나, 일곱 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니,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사략(史略), 통감(通鑑), 소학(小學), 중용(中庸), 시전(詩傳), 서전(書傳) 등을 모두 통달했다. 열 다섯 살이 되자 흰 망건에 흰 장삼을 입고 흰 띠를 두른 어엿한 선비 모습의 신이 되었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세화리의 손드랑마루라는 곳에 내려와서 당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다.

백죽도는 임정국의 따님으로 태어나 일곱 살이 되자, 부모님 눈에 거슬려 쫓겨났다. 갈 데가 없으므로 용왕천자국 대왕인 외삼촌한테 수청부인으로 들어가서 갖가지 주술을 배우고 돌아와 부모님께 사죄했으나 부모님이 받아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녀는 세화리에 당신으로 계신 외할아버지를 찾아와 같이 좌정하게 되었다.

〈2〉 호근 본향당신(好近 本鄉堂神)

서귀포시 호근동의 본향당신은 ‘애비국하로산또’라는 이름의 신이다. 한라산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하로산또[漢拏山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신은 하로영산[漢拏靈山]에서 을축(乙丑) 삼월 열 사흘날 자시(子時)에 솟아났다. 부모 없이 저절로 솟아난 것이다. 솟아나고 보니, 그 시간이 자시인지라 천지는 칠혹같이 캄캄하여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 없었다. 얼마 있자, 천황닭[天皇鷄]이 울어대고 지황닭[地皇鷄]이 울어 가니 먼동이 트기 시작하여 밤과 낮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방위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애비국하로산또는 한라산을 출발하여 내려오기 시작했다. 중문 도순리에 있는 시오름 상봉에 내려와 사슴 떼가 줄을 지어 달리는 것을 보고 요기하기로 하여, 맨 뒤에 있는 놈을 하나 쏘아 등에 걸머지고 다시 내려오다가 서귀포시 호근동으로 흐르는 들레넷도에 이르니 물이 하도 맑으므로 여기서 목욕을 하고 사슴을 먹고 바둑을 두고 있는 동안 신선에게 허락을 받아 좌정할 자리를 고르다 돌혹기라는 곳이 산수(山水)가 가장 좋으므로 거기 좌정하여 호근동을 차지하고 당신이 되었다.

〈3〉 사계(射溪) 큰물당신(堂神)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본향당신인 큰물당신도 한라산에서 솟아나 수렵을 하며 살았던 신이다. 이 신은 할로영산[漢拏靈山] 서쪽 등성이에서 저절로 솟아났다. 이 신은 자신이 차지할 마을을 찾기 위해 한라산을 떠났다. 노루 사슴떼를 몰아 ‘훈골’로 내리고 홍군에서 다시 ‘변내골’로 내리

고, 변내골에서 다시 홍골로 되돌아 올라서 산방굴사(山房窟寺) 머리로, 큰물머리로 하여 당물에 올라 와 사슴을 잡았다. 피를 뽑아 시원하게 먹은 후, '이우암동산'에 올라 앉아 좌정할 곳을 찾아보니 사계리 '큰물'에 혈이 떨어져 있어 좌정할 만했다.

한라산에서 솟아난 신들은 거의 모두 '고기도 장군', '밥도 장군', '술도 장군'으로 먹는 거인이며 화살 하나를 쏘면 일만 군사가 저절로 숙여 들어오고 나가는 무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4〉 예촌·보목 본향당신(禮寸·甫木 本鄉堂神)

서귀포시 남원읍 예촌리[신례리·하례리]의 본향당신과 서귀포시 보목동 본향당신은 맺어진 형제이다. 할로영산[漢拏靈山]에서 솟아난 '백관님'과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도원님', 그리고 서귀포시 상호동 경에 있는 칠오름에서 솟아난 '도병사', 이 세 신들은 예촌 본향당의 신이다. 그리고 할로영산의 백록담에서 솟아난 '바라뭇님'은 보목동의 본향당신이다. 백록담에서 솟아난 '바라뭇님'은 성장하여 신중부인과 결혼하고 살 곳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 어느 날, 부인을 거느리고 백록담을 떠나 차츰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서귀포시 상호동 경의 제완지골이란 곳에 이르고 보니 칠오름에 푸른 군막이 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어떤 어른들이 저렇게 휘황하게 차려 놓고 있을까?' 부인을 토평동 허씨 집 과부택에 맡겨두고 칠오름에 군막이 쳐 있는 곳을 찾아갔다. 신선 같은 세 분이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수작을 하고 보니, 한 분은 할로영산에서 솟아난 '백관님'이고, 한 분은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도원님'이고, 또 한 분은 칠오름에서 솟아난 '도병사'였다. 네 신은 마주 앉아 인사를 나눈 후, 나이의 위아래를 가리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웠다. 한찬 의논 끝에 바둑을 두어서 이기는 이가 형이 되기를 합의하였다. 바둑판을 앞에 두고 한 점 두 점 붙이다보니, '백관님'과 '도원님', '도병사' 셋은 한패가 되어 서로 후원을 하고 '바라뭇님'은 외톨이가 되어 바둑을 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백관님', '도원님', '도병사'는 윗 마을의 예촌을 차지하여 예촌에 가서 '베야기된뱃'이라는 곳에 좌정하여 예촌 본향당신이 되고, '바라뭇님'은 아래 마을인 보목리의 '조노된뱃'이라는 곳에 내려와 좌정하여 보목 본향당신이 되었다.

〈5〉 상창(上倉) 하르방당신(堂神)

할로영주삼신산[漢拏瀛洲三神山] 봉우리 서쪽 어깨에서 을축(乙丑) 삼월

열사흔날 유시(酉時)에 아홉 형제의 신이 솟아났다. 아홉 형제가 각자 흠어져서 내려와 여러 마을을 차지하여 당신이 되었다. 큰 형은 성산읍 수산리 당신이인 울뢰마루하로산이고, 둘째는 애월읍 수산리 당신이 제석천왕하로산[帝釋天王漢拏山]이고, 셋째는 남원읍 예촌리의 당신이 고뱅석도하로산이고, 넷째는 서귀포시 동홍동과 서홍동의 당신이 고산국하로산이고, 다섯째는 서귀포시 중문동의 당신이 동백자로하로산이고, 여섯째는 서귀포시 하모동의 당신이 동백자로하로산이고, 일곱째는 대정읍 일과리의 당신이 제석천왕하로산이고, 여덟째는 안덕면 상창리의 당신이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이고, 아홉째 막내는 구좌읍 종달리의 당신이 제석천왕하로산이다. 이 형제 신들은 한라산에서 솟아났으므로 그 이름에도 모두 ‘-하로산[漢拏山]이 붙은 것이다.

〈6〉 중문 본향당신(中文 本鄉堂神)

서귀포시 중문동의 본향당신은 동백자로하로산이다. 이 신은 한라산 봉우리 서쪽 어깨에서 을축(乙丑) 삼월 열사흔날 유시(酉時)에 솟아난 아홉 형제 신 가운데 다섯째이다. 이 신은 한라산을 떠나 차츰차츰 내려와 중문동에 와서 당신이 되고 ‘진궁하늘진궁부인’이라는 신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부부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아들은 아직 어린지라 어머니 젖가슴을 뜯고, 아버지 무릎을 앉아 수염을 뽑고 가슴팍을 치곤 했다. 이것이 부모의 눈에 거슬렸다. 돌함을 단단히 짜서 아들을 담아 자물쇠로 잠그고는 곧 바다로 띄워 버렸다. 돌함은 밀물에도 둥둥, 썰물에도 둥둥 떠돌아다니다가 동해용왕각의 산호나무 가지에 걸렸다.

용왕의 막내딸인 꽃당혜신은 발로 돌함을 툭툭 차니 자물쇠가 저절로 열려졌다. 돌함 속에는 셋별 같은 동자가 앉아 있었다. “저는 인간 세상의 사람으로, 아버지는 하로백관[漢拏百官]이고 어머니는 진궁하늘진궁부인인데, 부모님 눈에 거슬리어 바다에 띄워 버리기에 여기 왔습니다”하고 동해용왕의 막내 사위가 되었다. 용왕국에서는 사위손님을 대접하느라고 별별 음식을 차려 올리는데 밥도 술도 장군으로 먹다보니 석달 열흘 백일이 되어 동창고, 서창고가 다 비어가고 이 사위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용왕국이 망할 듯 했다. 용왕은 사위와 딸을 다시 돌함에 담아 물 바깥으로 띄워 버렸다. 돌함은 물결에 따라 떠돌아다니다가 중문동 앞쪽 바다에 떠올라왔다. 아들부부는 물으로 올라와 부모님을 찾아갔다.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일곱 살 때 죽으라고 바다에 띄워 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

온 것이 분명했다. 거기다 용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니 반가웠다. 동백자하로산은 며느리가 불쌍히 생각되어 탄 살림을 내주기로 했다 중문동에 불목당이라는 다른 당을 마련토록 하고 거기에 가 좌정하여 신앙민들의 제의를 받아먹도록 해주었다. 이래서 중문동에는 ‘도람지케’라는 본향당과 불목당이 생기게 된 것이다.

〈7〉 광양당신(廣壤堂神)과 호종단(胡宗旦)

광양당신은 제주시 이도동의 광양에 있었던 당신이다. 지금은 그 자취도 없어져 버렸지만 옛날에는 아주 큰 당신이였다. 옛 문헌들에는 광양당을 한라산호국신사(漢拏山護國神祠)라 하고 언전(諺傳)에는 한라산신(漢拏山神)의 아우라고 한다. 한라산수호국인 광양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영특하여 성덕(聖德)이 있었는데, 죽은 후 신이 되어 모셔졌다.

고려 때의 일이다. 중국 송나라 왕이 지리서를 펴 놓고 보니 제주도의 지리가 심상치 않았다. 그 혈들이 인걸만 쉼 새 없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송나라 왕은 이 인걸들을 못나게 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호종단을 불러 제주의 물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좋은 샘물이 없으면 인걸이 못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문헌에는 호종단이라 되어 있지만, 현재 구전되는 전설에는 그 이름이 ‘고종달[胡宗旦]’이라고 되어 있다.

고종달은 구좌읍 종달리 바닷가로 배를 붙여 들어와 마을 이름이 종달리[終達里]라고 듣자 “무엇하게 내 이름과 같다”고 화를 내며 우선 종달리의 물혈부터 끊기 시작했다. 종달리의 물혈을 뜬 고종달이는 서쪽을 향해 차례로 혈을 떠왔다. 제주시 화북동에 이르렀다. 그가 가진 지리서에 ‘고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이라는 물혈이 있으므로 이 혈을 뜨기 위해서였다. 고종달이는 이 물을 찾아 지리서를 보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때 화북동의 어느 밭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백발 노인 한 사람이 혈레벌떡 달려왔다. 노인은 매우 급하고 딱한 표정으로 하소연을 했다. “저기 있는 물을 이 행기[늑그릇]로 한 그릇 떠다가 저 소 길마 밑에다 잠시만 숨겨 주십시오.” 농부는 무엇 때문인지 영문을 몰랐지만 노인의 몸가짐이 하도 다급한 것 같으므로 물어 볼 겨를도 없이 그대로 해 주었다. 그랬더니 노인은 그 행기물 속으로 살짝 들어가 사라져 버렸다. 이 노인은 산신(山神)이었다.

얼마 안되어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나타났다. “여기 고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이라는 물이 어디 있소?” 무슨 책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농부는 이 마을에 이제까지 살아도 그런 물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여기가 틀림없는데……” 중얼거리며 주위를 살살이 찾아보는 이 사람이 바로 고종달이었다. 그가 가진 지리서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 책인지, 이 수신이 행기 속의 물에 들어가 길마 밑에 숨을 것까지 다 알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고부랑나무라는 것은 길마를 이름이고, 행기 물이란 행기 그릇에 떠놓은 물을 이른 것이다. 그런데 고종달이는 이것을 몰랐다. 또한 농부도 그것을 알 리가 없었다. 그저 그런 이름을 가진 샘물이 없으니 없다고 한 것 뿐이었다.

고종달이는 아무리 샘물을 찾아봐도 샘물이 없으니, “이놈의 지리서가 엉터리구나” 하면서 찢어서 던져 버리고 가버렸다. 이래서 화북동의 물혈을 꿰지 못해서 지금도 샘물이 솟는다. 그때 행기 그릇 속에 담겨 살아난 물이라 해서 ‘행기물’이란 이름이 붙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8〉 한라산신(漢拏山神)과 이태조(李太祖)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안 이성계는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며 자기의 큰 뜻을 고하고 가호를 빌었다. 한라산신은 단번에 이를 거절해 버렸다. 신하로써 어찌 그런 불충한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도 이성계는 뜻을 굽히지 않고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하여 송경(松京)으로 군사를 몰았다. 천하를 잡아 등국하자, 이태조는 곧 한라산신에게 칙서(勅書)를 내렸다. 혁명에 동의와 협조를 하지 않았으니 귀양 보낸다는 내용이였다. 칙서의 내용은 자세히 알 길이 없으나 가히 우스운 전설이다. 이만 하면 인간의 무모도 극에 달한 감이 없지 않다. 이까짓 일에 훌훌히 채비를 차리고 귀양길을 떠날 한라산신은 아니리라.

4. 향후 관리방안

한라산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제주도민의 주민생활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의 대상으로, 혹은 생활자원 제공처나 산악활동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은 국가지정 명승들을 품고 있으며, 많지는 않으나 여러 문화재와 기념물 등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비록 문화재는 아니지만 한라산 역사문화유적으로 가치를 지닐만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하면 한라산에는 보호하고 보존할 만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역사문

화유적이 다수 분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정문화재의 경우 자료가 부족하고 어느 선까지 문화유적으로 보아야할 지도 명확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명확한 비지정문화재의 수를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한라산 역사문화유적자원을 발굴해 내고 한라산국립공원에 맞는 문화재의 정의를 내려 보존 및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1. 고정균 외 공저. 200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pp.632.
2. 고정균 외 공저. 2009. 한라산의 자연자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pp.350.
3. 고창석 외 공저. 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pp.492.
4. 송인순 외 공저. 2002. 한라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pp.342.
5. 우리지도. 2009.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임야약도. pp.700.
6. 제주도. 1994. 한국의 영산 한라산. 일신옵셋. pp.410.
7. 제주도 마애명. 1999. 제주도·제주동양문화연구소. pp.222.
8. 현용준. 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pp.269.

<웹사이트>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